

백제의 부흥운동과 전북지역의 역할

김병남*

논문접수일: 2019. 10. 30. 심사개시일: 2019. 11. 10. 게재확정일: 2019. 11. 21.

목 차

- | | |
|-----------------------|------------|
| 1. 머리말 | 5. 맺음말 |
| 2. 백제 부흥운동 관련 지명의 분석 | 참고문헌 |
| 3. 백제와 전북지역의 관계 변화 | <Abstract> |
| 4. 부흥백제국 수립과 전북지역의 역할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백제부흥운동기(660년 7월~663년 9월) 전북 지역이 어떠한 역할을 차지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된 지명들의 위치 비정과 의미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백제 부흥운동 기간 동안 충남·대전권 20개(53%), 전북권 12개(32%), 전남 3개(8%), 경남 2개(5%), 제주 1개(2%)의 지명을 확인하였고, 특히 부흥운동의 중심지가 사비(부여)와 웅진(공주) 등 충남·대전권에서 두량(완주), 고사성(정읍), 주류성(부안), 피성(김제), 금마(익산) 등의 전북권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전북 지역이 백제에서 중요한 위상과 위치를 갖는 것은 백제와의 연관 때문이다. 4세기에 이르러 비리(군산)·벽중(김제)·포미·지반(부안)·고사(정읍)와 의류촌(주류수지=주류성) 등이 백제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는데 백제는 이를 ‘국가의 기틀이 영원히 단단해졌다’고 표현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처럼 전북권이 백제의 중요 지역으로 부각되었고, 이후 웅진과 사비시대에 백제 5방 체제가 확립되면서 국토의 한 가운데에 설치되었다는 중앙으로서의 ‘중방’이란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 E-mail: kbn1004@korea.kr, Tel: 042-481-1787

의미까지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백제라는 국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흥세력은 좀 더 안전한 중심 근거지가 필요하였다. 그런데 이미 사비 및 웅진 등은 전쟁의 앞마당이었기에 나·당군의 침략이 비켜간 금마저(익산)나 중방 고사성 등이 주목될 수밖에 없었다. 또 부흥전쟁을 위한 식량 확보 등도 필요한 상황이었었는데 백제 중방 지역 즉, 전북은 삼한에서 가장 기름진 곳으로서 ‘衣食의 근원’이었다. 따라서 백제 부흥운동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역사적·경제적·지리적인 모든 측면에서 부흥국 수립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였다.

주제어 : 부흥운동, 두량이, 고사성, 지반, 주류성, 피성, 금마, 중방, 삼한, 전북

1. 머리말

서기 7세기는 우리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적 전환을 요구받는 시기였다. 자의든 타의든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다자간 국가 관계는 새로운 질서의 모색에 따른 충돌과 타협을 강요받았다. 한반도에서 대립하던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도 이러한 국제 질서의 틈바구니에서 국가의 존속을 위한 방향을 결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과 타협을 통해 승기를 잡은 것은 결국 신라였다. 신라는 6세기 이후 백제와 끊임없는 대립 관계에 있었고, 7세기 초·중반에 이르러서는 백제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밀리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백제와 고구려에게 몰린 신라는 외세를 끌어들었다기보다는 천하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고구려를 복속하려던 당나라의 대외 정책에 편승한 결과 비록 만주는 상실하였지만 장기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영토를 확충하는 결실을 맺었다.¹⁾

하지만 이러한 신라의 성과는 반대로 백제에게는 국가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백제의 입장에서 660년 7월은 구성원들의 삶에 공황 상태를 야기시켰다.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한 외침으로 7월 12일에 수도인 사비성을 함락 당하였고, 마침내 7월 18일에는 자국의 의자왕이 항복함으로써 국가의 종료를 직접 목도하게 되었다.

모든 것은 승자의 것이기에 전쟁의 결과로 파생된 패배자의 상황은 언제나

1) 박노자, 2010, 『거꾸로 보는 고대사』, 한겨레출판, 102쪽

참혹하였다. 이는 백제도 마찬가지로 백제민들은 수도인 사비성이 점령한 당군의 재물 약탈, 부녀자 겁탈, 장정 살해 등 갖은 행패 자행²⁾을 감수해야만 했다. 또 점령군의 횡포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는 것이었기에 사비도성과 그 인근 일대는 무방비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사비성 넘어 백제 전 지역에 실상이 알려지면서 사뭇 파장을 야기하였을 것은 쉽게 짐작하고도 남는다.

따라서 당군 약탈을 고려하면 이미 7월 18일 이후부터 외세의 침탈에 대비한 자구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9월 3일 당군 본진이 철수한 뒤 백제 지역은 이제 남은 자의 몫이 되었다. 1만에 불과한 당 주둔군의 숫자는 당장에 더 이상 백제 지역에 대한 점령을 확산하지 않는다는 신호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분산적으로 나타나던 자위조직체들이 이러한 구조와 상황 속에서 서서히 국가의 부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세력을 확산하였다. 그 결과는 이후 치열하게 타오르는 부흥운동의 전개였다.

물론 그간의 연구 성과³⁾가 축적되면서 백제의 부흥운동도 그 태동과 전개 그리고 확산 등에 대한 여러 역사적 실상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토대 위에 부흥운동의 지역적 전개 상황을 들여다보려고 한다. 과거와 현재의 접점이란 부분에 기반하여 백제의 일부를 이루던 전북권역에서의 부흥운동은 어떠한 모습과 의미를 갖는 것인지 살펴보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은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된 지명들의 위치 비정을 통해 지명의 계량적 정리를 통한 의미 분석을 시도해 보겠다. 그리고 백제와 전북 지역이 갖는 관계의 변화를 시대 순으로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백제 부흥국의 수립 과정에서 전북 지역이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이었을까 고민해보도록 하겠다.

2) 『구당서』 권109, 열전53, 흑치상지. “時定方……仍縱兵劫掠 丁壯者多被戮”

3) 백제 부흥운동 관련 중요한 연구서들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영래, 1996, 『백촌강에서 대야성까지』, 신아출판사 ; 노중국, 2003,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편, 2004,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서경 ; 김영관, 2005, 『백제부흥운동연구』, 서경 ; 문안식, 2006, 『백제의 흥망과 전쟁』, 해안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7,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6 ; 양중국, 2008, 『의자왕과 백제부흥운동 옛보기』, 서경 ;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 출판부

2. 백제 부흥운동 관련 지명의 분석

본 장에서는 백제 부흥운동의 시작과 전개 그리고 확산 및 종료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나·당과 부흥세력 사이의 접전 지명을 통해 660년 7월 이후 663년 9월에 이르기까지의 부흥운동의 전개 지역과 확산 범위를 짐작해 보려는 것이다. 이로써 백제의 부흥과 관련하여 백제에 속해 있던 오늘날의 지역별, 즉 충남, 전북, 전남권별로 가담 정도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에 관련 기록에 나오는 지명들을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백제부흥운동 관련 지명

연번	관련지명	연도	출전
①	周留城	661.3	『삼국사기』 의자21년, 『구당서』 유인궤, 『구당서』 백제, 『신당서』 백제, 『자치통감』
②	州柔	662.12	『일본서기』 천지1년
③	疏留城	662.1	『일본서기』 천지1년
④	都都岐留山	660.9	『일본서기』 제명6년
⑤	豆率城	663.8	『삼국사기』 김유신
⑥	任存城	661.3	『삼국사기』 의자21년, 『구당서』 유인궤, 『구당서』 백제, 『자치통감』
⑦	任存大柵	660.8	『삼국사기』 무열7년
⑧	任孝城	661	『신당서』 백제
⑨	任射岐山	660.9	『일본서기』 제명6년
⑩	北任敍利山	660.9	『일본서기』 제명6년
⑪	南岑	660.8	『삼국사기』 무열7년
⑫	豆尸原嶽	660.8	『삼국사기』 무열7년
⑬	泗泚南嶺五柵 泗泚南嶺軍柵	660.9 660.10	『삼국사기』 무열7년
⑭	尙禮城	660.10	『삼국사기』 무열7년
⑮	王興寺岑城	660.11	『삼국사기』 무열7년
⑯	中部久麻怒利城	660.9	『일본서기』 제명6년
⑰	耽羅	661.5 662.2	『일본서기』 제명6년 『삼국사기』 문무1년
⑱	熊津江口兩柵	(661)	『삼국사기』 의자21년, 『구당서』 백제, 『자치통감』
⑲	豆良尹城	661.3	『삼국사기』 무열7년
⑳	古沙比城	661.3	『삼국사기』 무열7년
㉑	古泗	661.3	『삼국사기』 의자21년, 『자치통감』
㉒	葛嶺道	661.3	『삼국사기』 의자21년, 『자치통감』

연번	관련지명	연도	출전
㉓	賓骨壤	661.4	『삼국사기』 무열7년
㉔	角山	661.4	『삼국사기』 무열7년
㉕	金馬郡	661.6	『삼국사기』 무열7년
㉖	南方諸城	(661)	『삼국사기』 문무11년
㉗	甕山城	661.8	『삼국사기』 문무1년
㉘	雨述城	661.9	『삼국사기』 문무1년
㉙	加巴利濱	661.12	『일본서기』 천지즉위
㉚	支羅城	662.7	『삼국사기』 의자21년, 『구당서』 백제, 『신당서』 백제, 『자치통감』
㉛	尹城	662.7	『삼국사기』 의자21년 『구당서』 백제, 『자치통감』
㉜	大山柵	662.7	『삼국사기』 의자21년 『구당서』 백제, 『자치통감』
㉝	沙井柵	662.7	『삼국사기』 의자21년, 『자치통감』
㉞	沙井	662.7	『구당서』 백제
㉟	眞峴城	662.7	『삼국사기』 의자21년, 『구당서』 유인궤, 『구당서』 백제, 『신당서』 백제, 『자치통감』
㊱	貞峴	660.8	『삼국사기』 무열7년
㊲	加林城	663.9	『삼국사기』 의자21년 『구당서』 유인궤, 『자치통감』
㊳	怒受利山	660.9	『일본서기』 제명6년
㊴	內斯只城	662.8	『삼국사기』 문무1년
㊵	避城	662.12	『일본서기』 천지1년
㊶	安德	663.2	『일본서기』 천지2년
㊷	居列城	663.2	『삼국사기』 문무1년
㊸	居勿城	663.2	『삼국사기』 문무1년
㊹	沙平城	663.2	『삼국사기』 문무1년
㊺	德安城	663.2	『삼국사기』 문무1년
㊻	百濟南畔四州	663.2	『일본서기』 천지2년
㊼	石城	663.5	『일본서기』 천지2년
㊽	豆禮	663.9	『일본서기』 천지2년
㊾	白村江	663.8	『일본서기』 천지2년
㊿	白江	663.9	『구당서』 유인궤, 『구당서』 백제, 『자치통감』
①	枕服岐城	663.9	『일본서기』 천지2년
②	牟呂	663.9	『일본서기』 천지2년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제 부흥운동 시기에 등장하는 지명을 열거해 보면 약 50개 이상이 나타난다. 물론 이 중에는 동일 지명에 대한 다른 명칭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일단 명칭이 다르게 표현된 것을 모두 모아 보면 위와 같다. 3년에 기간에 비하면 많을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은 지명이 갖는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이에 대한 정확한 위치 추정이 필요하다.

우선 부흥운동의 태동과 연관된 임존성(⑥)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충남 예산의 鳳首山城으로 추정된다. 태피식 석축성인 봉수산성은 둘레 2,426m로 고대 산성 가운데는 꽤 큰 규모를 가지는데 김정호의 『청구도』에도 ‘任存古城’이 봉수산 북쪽에 표기되어 있다. 지표조사 결과 ‘任存’·‘存官’·‘任存官’ 등이 새겨진 백제 때의 명문 기와가 수습되었다.⁴⁾ 한편 『신당서』에는 ‘임효성’이라 나오는데 『자치통감』에 “或作任孝城”이라 한 것을 보면 이것 또한 임존성이 맞는 것 같다. 또 『일본서기』 제명 6년에 보이는 ‘任射岐山(니자키노무레)’과 그를 달리 칭하는 任敍利山 또한 모두 임존성을 가리키는 것⁵⁾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존, 임존산, 임존성, 임효성(⑧), 임존대책(⑦), 임사기산(⑨), 임서리산(⑩) 등의 표현은 모두 임존성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다음 부흥운동 최초의 자위조직체 중의 하나인 南岑(⑪)의 경우 부여 임천면 금성산이나 석성면 석성산성 중에 하나⁶⁾로 보고 있으나 『일본서기』 천지 1년 9월에 나오는 석성(④7)⁷⁾이 부여 석성면 현내리의 석성산성⁸⁾임을 감안한다면 금성산⁹⁾ 쪽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남잠(⑪)과 함께 나타나는 정현성(⑫)은 진현성(⑬)과 같은 곳으로 보는데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의 후석동산성으로 보는 견해¹⁰⁾가 유력하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鎭嶺縣本百濟眞峴縣[眞一作貞] 景德王改名今鎭岑縣”이라 하였고, 백제군현명 부분에서도 “眞峴縣[一云貞峴]”으로 나온다. 또 김정호의 『대동지지』 진잠현의 성지 항목에 “密岩古城[有遺址俗稱美林古城]”을 언급하였다.

남잠(⑪)·정현성(⑫)과 함께 등장하는 두시원악(⑬)의 경우는 『삼국사기』 지리지의 전주 진례군에 보이는 ‘豆尸伊縣’을 근거로 현재의 전북 무주 부남면 일대¹¹⁾로 보기도 하지만 충남 정산의 계봉산성으로 추정¹²⁾하는 견해도 있다.

4) 예산군·충남개발연구원, 2000, 『예산 임존성』, 21~26쪽

5) 동북아역사재단, 2013, 『역주 일본서기』 3, 309쪽

6)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8, 『백제사자료역주집-한국편1』, 302쪽

7) 충남 홍성 장곡면 대현리의 鶴城산성으로 보기도 한다.(동북아역사재단편, 앞의 책, 340쪽)

8) 충청남도, 1991, 『문화유적총람(성곽 관아편)』, 139~140쪽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8, 『백제사자료역주편-일본편』, 187쪽

9) 심정보, 2007, 『부흥군의 봉기와 부흥활동의 전개』,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6, 145쪽

10) 심정보, 1983, 『백제부흥군의 주요거점에 관한 연구』, 『백제연구』 14, 150쪽

11) 정구복 외, 1997, 『역주 삼국사기』 3 주석편(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86쪽

사비남령5책과 사비남령군책(13)은 660년 9월~10월 사이에 사비성을 포위 공격하였을 때 설치된 군사용 목책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 태종무열왕 7년에는 “泗泚南嶺豎四五柵屯聚”, “泗泚南嶺軍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문무왕 11년 기록에도 “府城側近四處作城”하였으며, 『당유인원기공비』에 “柵二城 時屬窮 冬□□□□”이라 나오는 것에 따르면 사비성 주위에 부흥세력의 목책이 설치된 것이 확인되는 바 당군이 주둔한 사비성 밖의 어느 산¹³⁾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현재 부소산성 바로 앞에 입지한 ‘남령공원’¹⁴⁾으로 보기도 한다.

이례성(14)의 경우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연산현 산천 항목 “兜率山[在縣東十五里有古城基]”과 『대동지지』 연산 城池 항목의 “余禮城[在兜率山有遺址俗轉呼伊里城]”을 보면 충남 논산 연산면에 있던 성¹⁵⁾으로 추정된다. 또 왕흥사잠성(15)도 사비남령군책(13)에 진을 친 백제부흥세력을 격파한 신라군이 660년 11월 5일 금강의 나무로 추정되는 계탄을 건너 공격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사비성 주변임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런데 부여 규암면 신구리의 절터에서 ‘왕흥’명 기와편이 나와 왕흥사지 배후에 있는 둘레 약 350m의 소규모 테피식 토축성인 울성산성으로 추정¹⁶⁾된다.

다음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중부 구마노리성(16)은 대체로 공주와 연관이 된다. ‘중부’라는 표현은 『주서』 백제전의 5방과 연결하면 북방 즉 북부가 잘못 전해진 것이라 보인다. 이것은 구마노리성이 웅진(공주)과 관련된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이 성을 곧바로 북방(북부)의 방성인 웅진성으로 볼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백제가 멸망할 당시 웅진성은 항복하면서 당군이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웅진성 관할 하에 있던 성 중의 하나로 웅진 부근의 어느 곳¹⁷⁾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탐라(17)는 제주도로 추정된다. 『일본서기』 제명 7년(661) 5월 기록에 “耽羅始遣王子阿波伎等貢獻”이라 하였고, 『삼국사기』 문무왕 2년(662) 2월 기록에는 “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一作津]來降”이라 하여 탐라가 백제의 멸망 후 자

12) 심정보, 2006, 『부흥군의 봉기와 부흥활동의 전개』, 145쪽. ;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해안, 484쪽

13) 노중국, 2003, 앞의 책, 210쪽

14) 심정보, 2007, 앞의 논문, 154쪽

15) 이도학, 1997, 『새로 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232쪽 ; 노중국, 앞의 책, 198쪽 ; 문안식, 앞의 책, 491쪽

16) 이도학, 앞의 책, 232쪽 ; 노중국, 앞의 책, 201쪽 ; 문안식, 앞의 책, 491쪽

17) 노중국, 앞의 책, 92쪽

구책 마련을 위해 일본과 신라 등지에 사신을 파견하는 모습을 보인다.

웅진강구양책(18)은 웅진강 일대에 설치된 목책으로 추정된다. 『구당서』 소정방전에는 “濟海至熊津江口”라 하였고, 『삼국사기』 의자왕 20년 기록에도 “合兵禦熊津口”라 하여 660년 7월 당이 백제를 치기 위해 들어간 기벌포를 ‘웅진강구’라거나 ‘웅진구’로 표현하였다. 이에 백제에서는 ‘백강’, 당에서는 ‘웅진강’이라 불렀다는 입장¹⁸⁾에서 금강 하구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하는 웅진강구는 661년 2월~4월 사이에 나·당군과 백제부흥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 과정 속에 등장하는 곳으로 『구당서』 백제전에는 “道琛等於立熊津江口立兩柵以拒官軍 仁軌與新羅兵四面夾擊之……阻水橋狹墮水”라 하여 웅진 부근임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비록 금강이지만 웅진(공주) 부근을 흐를 때는 웅진강, 사비(부여) 인근은 흐를 때는 백강이라 보면¹⁹⁾ ‘웅진강구’는 웅진 부근이 맞다.

두량윤성(19)은 일반적으로 豆良伊城·豆陵尹城·豆串城·尹城이라고 본다. 이것은 『삼국사기』 지리 4의 백제군현명 항목에 “悅己縣[一云豆陵尹城·一云豆串城·一云尹城]”이라 하여 윤성·두곶성과 같다고 기록된 것에 기초하여 충남 청양군 定山面의 계봉산성에 비정²⁰⁾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부안군 주산면 사신리에 있는 뉘엄매에 비정²¹⁾하기도 하는데 이는 두량윤성을 주류성의 외성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충남 청양 정산면으로 보는 것도 지정학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두량윤성은 명확한 위치가 확인되는 고사비성(20), 고사(20)와 연결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두량윤성은 고사비성 주변과 연계된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 이럴 경우 ‘두량윤’을 달리는 ‘두량’이라고도 불렀다는 것에 주목하면 완산군 영현의 ‘두이현’이 주목된다. 실제 백제 ‘豆伊縣’은 ‘伊縣’이라고 약칭되었기에 신라에서 이성현이라 개명²²⁾되었다. 현재 완주군 이서면(두이현)은 북으로 익산(금마군25)이 지척이고, 서로는 김제(피성40), 남서쪽으로 정읍(고사비성20)과 이어진다. 또한 『삼국사기』 지리 4에는 두이현을 달리는 ‘往武’라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고대 우리식 지명과는 다른 한자식인데, 이

18) 서정석, 2004, 「백제 백강의 위치」, 『백산학보』 69, 222~226쪽.

19) 김영관, 2007, 「나당연합군의 백제공격로와 금강」, 『백제와 금강』, 244쪽

20) 노도양, 1979, 「백제 주류성고」, 『명대논문집』 12, 8쪽

21) 전영래, 1996, 『백촌강에서 대야성까지』, 신아출판사, 74~75쪽 ; 박노석, 2017, 「백제 부흥전쟁기 두량윤성과 백강의 위치에 대한 고찰」, 『전라북도 백제부흥운동과 백강전투의 콘텐츠 방안』, 71쪽

22) 정재윤, 2002, 「신라의 백제고지 점령 정책-완산주 설치 배경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98, 146쪽

러한 지명 변화는 고사부촌을 ‘平倭’현, 거사물을 ‘隆化’현이라 한 것과 결부하면 고사비성, 거물성 등 백제 부흥운동의 중요한 지역에 대한 지명 개정임을 뜻한다. 따라서 ‘왕무’라 개정된 두이현이 두릉운(이)성과 연관이 있음²³⁾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고사비성²⁰⁾은 현재의 전북 정읍 고부면이다. 『주서』 백제전에는 백제 사비시기 광역지방조직인 5방 중의 하나인 中方 ‘古沙城’이라 나오고,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는 ‘古沙夫里’ 또는 ‘古沙夫村’·‘古四州’라 불렸으며, 『자치통감』에는 ‘古泗²¹⁾’로도 기록되었다.

갈령도²²⁾는 『삼국사기』 의자왕 21년 기록에 “羅王春秋奉詔 遣其將金欽將兵救仁軌等 至古泗 福信邀擊敗之 欽自葛嶺道遁還”이라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다른 기록인 『삼국사기』 태종무열왕 8년(661)에도 “十二日大軍來屯古沙比城外 進攻豆良尹城 一朔有六日不克 夏四月十九日班師……至賓骨壤 遇百濟軍 相鬪敗退……遇賊於角山……遣將軍金純……濟師救援 至加尸兮津 聞軍退至加召川 乃還”이라 나온다. 이로 보아 고사비성(=고사)에서 빈골양(정읍 태인)과 각산(임실)을 거쳐 장수 장계면의 육십령을 넘어 거열(경남 거창), 가소천(거창 가조면)을 지나는 도로²⁴⁾로 추정된다. 또 함께 등장하는 빈골양²³⁾은 『삼국사기』 지리지의 “斌城縣 本百濟賓屈縣景德王改名今仁義縣”이라 한 것에 근거하여 정읍 태인면으로 볼 수 있는데 아예 태인 웅동면 산성리의 산성²⁵⁾으로 보기도 한다.

角山²⁴⁾의 경우 『삼국사기』 지리지의 三國有名未詳地分에 나와 있어 구체적인 위치가 미상이다. 다만 백제부흥세력과 신라군이 빈골양²³⁾에서 전투를 한 것으로 보아 각산도 인근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정읍 부근²⁶⁾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백제 무왕 6년 2월에 쌓은 각산성에 주목하여 각산을 대신라 방어용 산성으로써 임실에서 장수로 넘어가는 742번 지방도 인근의 仙角山²⁷⁾으로 추정한 견해도 제기되어 주목된다.

금마군²⁵⁾은 전북 익산 금마면 지역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本百濟金馬渚郡 景德王改名”이라 하여 백제 금마저가 신라 때 금마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23) 김병남, 2013, 『백제 부흥 전쟁기 고사비성 전투의 의미』, 『정신문화연구』 126, 292쪽

24) 최병은 외, 2000, 『전북역사문헌자료집(삼국시대·남북국시대·고려시대)』, 전라북도, 59쪽

25) 전영래, 1996, 앞의 책, 81~82쪽

26)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8, 『백제사자료역주집-한국편1』, 311~312쪽

27) 최범호, 2017, 『완산주 설치와 관련한 전주의 지정학적 배경』, 『전북사학』 51, 46쪽

남방제성(㉔)은 남방의 여러 성이란 의미이다. 『삼국사기』 문무왕 11년 기록에 “往圍周留城 賊知兵少 遂即來打 大損兵馬 失利而歸 南方諸城 一時搃叛 並屬福信”이라는 기록으로 보건대 이 또한 661년 2~4월 사이에 벌어진 두량 이(㉑)·고사비성(㉒) 전투에서 신라군이 대패하자 부흥운동에 참여를 주저하던 백제의 여러 성들이 부흥세력에게 귀부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를 주류성 남쪽의 모든 성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주서』 백제전에 언급된 사비시대 5방 체제를 염두에 두면 5방 중 ‘남방’에 해당하는 성들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다음 웅산성(㉓)과 우술성(㉔)의 경우 백제의 우술군은 신라에 의해 비풍군으로, 다시 고려 때 회덕군으로 개칭되는데 회덕군은 오늘날의 대전 대덕구와 동구, 서구 삼천동, 유성구 전민동을 포함하는 곳이다. 『삼국사기』 문무왕 원년 기록에 신라군이 백제부흥군의 요충지인 웅산성과 우술성을 차례로 함락시켰음을 염두에 두면 두 성이 가까운 위치였다고 볼 수 있다. 계족산 동쪽 지역까지를 포괄하는 회덕군의 관할이 이미 백제 우술군 시절이었다면 웅산성으로 계족산성(28)을 주목할 수 있다. 계족산성의 발굴조사에서 기와에 ‘雨述’·‘雨述天國’ 등이 새겨진 것이 발견(29)되어 이 성이 우술군 관내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파리빈(카하리노하마 ㉕)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皆火’로 나오는 곳으로 현재 전북 부안(30)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지라성(㉖)은 『삼국사기』 지리지 4 삼국유명미상지분 항목에 “支羅城[或云周留城]”이라 하여 주류성과 같은 곳이라 기록하였다. 하지만 지라성은 662년 7월에 나당군에게 함락 당했지만 주류성은 663년 9월까지 백제부흥세력의 중심지로 나타나서 지라성이 주류성일 수는 없다.31) 오히려 지라성은 『책부원구』에 ‘支離城’으로 나타나므로 ‘지라-지리-질’로의 음운 변화를 추정하면 『신증동국여지승람』 회덕현 산천에 나오는 “迭峴[在縣東十二里]”으로 비정할 수 있어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질현성(32)일 수 있다.

윤성(㉗)의 경우는 “支羅城及尹城”을 ‘지라성 및 윤성’으로 읽으면 『삼국사기』 지리지 4 百濟郡縣名 항목의 “悅己縣[一云豆陵尹城·一云豆串城·一云尹城]”과 연결돼 (두량)윤성은 충남 청양 정산면의 계봉산성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

28) 김병남, 2013, 「백제 부흥전쟁기의 웅산성 전투와 그 의미」, 『전북사학』 42, 48쪽

29) 충남대박물관·대전시, 1998, 『계족산성 발굴조사약보고』, 8~9쪽

30) 전용신, 1989, 『완역 일본서기』, 일지사, 486쪽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8, 『백제사사료역주편-일본편』, 184쪽 ; 동북아역사재단, 2013, 『역주 일본서기』 3, 335쪽

31) 노중국, 앞의 책, 192쪽

32) 심정보, 1983, 「백제부흥군의 주요거점에 관한 연구」, 『백제연구』 14, 157쪽

만 윤성이 정산이라면 대전 대덕구의 지라성(㉔)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及尹城(위치 미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³³⁾도 있다.

대산책(㉕) 또한 『삼국사기』 지리4 삼국유명미상지분 항목에 나오는 관계로 위치를 알 수 없다. 다만 『삼국사기』 지리3에 “韓山縣本百濟大山縣 景德王改名今鴻山縣”이라 하여 홍산이 나오는데, 이 ‘鴻’자가 ‘大’자와 뜻이 통하므로 현재의 충남 부여 홍산³⁴⁾에 비정하기도 한다. 사정책(㉖)은 『구당서』 백제전에는 ‘沙井’(㉗)으로 나온다. 이곳은 662년 2월에 지라성(㉔)·윤성(㉕)·대산책(㉕)과 함께 나·당군에게 함락 당했다. 이 성은 『삼국사기』 동성왕 20년(498)에 처음 축조되었고, 다시 성왕 4년(526)에도 축조 기록이 나온다. 또 나·당군이 사정책을 함락시키자 부흥세력이 진현성(㉘)의 방비를 강화한 것으로 보아 양 성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주목된 곳이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창평 마을 뒷산의 사정동산성³⁵⁾이다.

다음 가림성(㉙)은 충남 부여 임천면 군하리에 있는 성흥산성³⁶⁾에 비정된다. 김정호의 『대동지지』 林川 城池 항목에 “聖興山古城[古加林城 周二千七百五尺 井三舊有倉]”이라 하여 그 규모를 알 수 있다. 이 성은 문무왕 11~12년에는 나·당 전쟁의 격전지였다.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노수리산(누주리노무레 ㉚)은 『삼국사기』 계백전에 나오는 황산으로 현재 충남 논산의 연산면이다.

내사지성(㉛)은 『대동지지』에 ‘奴斯只城’으로 나오는데 백제의 노사지현이 신라 때에 유성현으로 개칭된다. 따라서 내사지성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동산성(유성산성)으로 비정된다.

한편, 피성(㉜)은 『일본서기』 천지 원년 12월에 “都避城”이라 나온다. 『삼국사기』 지리4의 당령백제 항목에 고사주 내의 5현 중 하나로 ‘辟城縣’이 있고, 『삼국사기』 지리3에는 ‘벽골’을 김제군이라 한 부분만 보인다. 그런데 ‘辟’자의 음에 ‘벽’과 ‘피’도 있으므로 ‘辟城’은 ‘避城’과도 통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서기』에 피성이라 표기³⁷⁾하였다고 보았고, 아예 김제의 성산³⁸⁾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33) 노중국, 앞의 책, 237~238쪽

34)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백제사자료역주집-한국편1』, 276쪽

35) 성주탁, 1974, 『대전부근 고대산성고』, 『백제연구』 5, 16쪽 ; 심정보, 1983, 앞의 논문, 169~170쪽 ; 노중국, 앞의 책, 198쪽

36) 이병도, 1996, 『삼국사기』 하, 을유문화사, 112쪽

37) 노중국, 앞의 책, 186쪽

38) 김주성, 2018, 『벽골제의 기능』, 『백제문화』 58, 118쪽

안덕(㉔)은 덕안(㉕)의 오기로 보인다. 德安은 백제의 東方 ‘得安城’을 가리킨다. 『삼국사기』 의자왕 20년 기록에 당이 덕안 등 5도독부를 설치하였다고 나오고, 문무왕 3년에는 신라가 거사물, 사평성을 항복시키고 “又攻德安城”했다고 되어 있다. 이 덕안성은 본래 백제 때 德近支(德近郡)였고, 뒤에 신라 때에 전주 德殷郡(충남 논산 가야곡면)이 되었다.

거열성(㉖)은 본래 가야의 ‘居烈國’이었다가 진흥왕 23년(562)에 신라에게 병합되었고, 642년의 대야성 전투 이후 백제가 차지하였다. 그리고 문무왕 3년(663) 2월에 신라가 빼앗기 전까지 백제의 영역으로 남아 있게 된다. 경덕왕 때 거창군으로 개칭되어 고려에 이어졌는데 현재의 경남 거창읍 상림리의 거열산성이라 추정된다. 거물성(㉗)은 『일본서기』 계체 7년의 ‘己汶’과 『한원』에 인용된 『괄지지』의 ‘基汶’, 『양직공도』에 보이는 ‘上己汶’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현재의 남원³⁹⁾으로 추정한다. 사평성(㉘)의 경우 『삼국사기』 문무왕 3년 “攻取百濟居列城……又攻居勿城·沙平城降之 又攻德安城”이라 한 것으로 미루어 거물성과 덕안성 가까이에 위치했을 것이므로 전북 임실군 신평면⁴⁰⁾으로 비정할 수 있다. 더불어 남반사주(㉙)는 『일본서기』와 『삼국사기』가 동일하게 663년 2월인 점을 주목하여 거열성(㉖), 거물성(㉗), 사평성(㉘), 덕안성(㉕)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다.

한편, 주류성 함락 이후에 『일본서기』 기록에 등장하는 호례성(테레사시 ㉚)은 동로현(전남 보성군 烏城)이나 경남 남해도로 보고, 침복기성(㉛)은 전남 강진 지역으로, 모호(무태 ㉜)는 『일본서기』 흠명 17년에 백제 왕자 해가 왜국에서 귀국할 때 상륙한 항구 彌豆(미테)와 같은 곳으로 보아 현재 경남 남해도의 彌助리로 추정한다.⁴¹⁾

백촌(하쿠스키 ㉝)의 경우 『일본서기』에는 ‘白村’·‘白村江’으로 기록되었고, 『구당서』, 『자치통감』,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白江’(㉞)으로 나온다. 단 『삼국사기』에는 ‘白沙’로 기록하는 경우도 있고, 그 위치는 일반적으로 금강 하구 부근으로 추정하지만 동진강 하류⁴²⁾로 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주류성(㉟)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그 명칭이 주류성 이외에도

39) 전영래, 1996, 앞의 책, 119쪽 ; 백승충, 2000, 「6세기 전반 백제의 가야진출과정」, 『백제연구』 31, 68쪽. 한편 광장군도 남원 운봉설을 취하고 있다.(2013, 「임나사현과 기문의 위치」, 『백제학보』 9, 19쪽)

40) 김태식, 1993, 『가야연맹사』, 일조각, 123쪽.

41) 동북아역사재단, 2013, 『역주 일본서기』 3, 342~343쪽 ; 충남백제문화연구원, 2008, 『백제사사료역주편-일본편』, 189쪽

42) 이규홍, 2012, 「백제부흥운동시기의 기벌포 전투와 주류성」, 전북대석사논문, 34쪽

『삼국사기』 김유신전에는 ‘豆率城’(⑤)으로, 『일본서기』 천지 원년 기록에는 ‘疎留城(③)과 州柔(②)로, 제명 6년 기록에는 도도기류산(츠츠키루노무레 ④)으로 나온다.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지역이 대두되었다. 먼저 충남 서천 한산면으로 보는 견해는 최근 견지산성에 대한 조사결과 고려후기에 축조⁴³⁾한 성으로 밝혀져 더 이상 성립되기 어렵다. 다음으로 세종시 전동면 운주산성은 조사결과 통일신라 이후에 축조⁴⁴⁾된 성으로 판명되었고, 원수산성이나 당산성은 서로 가까운 거리로 주변에 넓은 들판을 끼고 있어, 농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토양이 척박한 곳이라는 『일본서기』의 기록과도 맞지 않는다.⁴⁵⁾ 또 지역 자체가 웅진의 동북쪽에 위치하여 청주와 가까운 거리로 신라의 국경⁴⁶⁾ 근방이라 주류성의 위치로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대동지지』 洪州 沿革 항목에 “本百濟周留城”이라는 기록을 근거로 홍성 장곡면의 鶴城山城과 石城이 주류성이라는 주장⁴⁷⁾도 조사 결과 백제 沙戶良縣과 연관된 지역⁴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현재는 부안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⁴⁹⁾ 주류성(부안 우금산성)의 둘레는 3,724m로 임존성(2,450m)보다 더 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흥운동 관련 지명의 위치 비정을 토대로 이를 다시 권역별로 나눠보면 아래 표와 같다.

-
- 43) 서천군·충청매장문화재단연구원, 1998, 『견지산성』 ; 2001, 『한산 견지산성』
 44) 공주대학교박물관, 1997, 『연기운주산성』 ; 서정석, 2000, 『연기 운주산성에 대한 고찰-통일신라시대 산성의 일례』, 『박물관연보』 5, 공주대 박물관
 45)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9, 『관방유적』, 『충남지역의 문화유적-연기군편-』 12
 46) 양기석, 2001,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신라서원소경연구』
 47) 박성홍, 1994, 『홍주주류성고』, 홍성군
 48) 상명여대박물관·홍성군, 1995, 『홍성군 장곡면 일대 산성지표조사보고서』 ; 1998, 『홍성석성산성건물지발굴조사보고서』
 49) 이도학, 1997, 앞의 책, 245~247쪽 ; 노중국, 2003, 앞의 책, 195~196쪽 ; 김영관, 2005, 앞의 책, 17쪽 ; 임용환, 2012, 『한국고대전쟁사』 2, 해안, 317~319쪽

〈표 2〉 백제 부흥운동 관련 지명 비정

권역	지명	위치	비고	권역	지명	위치	비고
충남	任存城	예산 대흥	任存大柵, 任孝城, 任射岐山, 北任紱利山	전북	周留城	부안	州柔, 疏留城, 豆率城, 都都岐留山
충남	南岑	부여 임천		전북	豆良伊城	완주 이서	
충남	豆尸原嶽	정산		전북	古沙比城	정읍 고부	古泗
충남	泗泚南嶺五柵	부여 인근	泗泚南嶺軍柵	전북	葛嶺道		
충남	尒禮城	논산 연산		전북	賓骨壤	정읍 태인	
충남	王興寺岑城	부여 규암		전북	角山	임실	
충남	中部久麻怒利城	공주 인근		전북	金馬郡	익산	
충남	熊津江口兩柵	공주 인근		전북	加巴利濱	부안	
충남	甕山城	대전계족산성		전북	避城	김제	
충남	雨述城	대전 대덕		전북	居勿城	남원	
충남	支羅城	대전 대덕		전북	沙平城	임실	
충남	尹城	청양계봉산성		전북	白江	금강~동진강하구	白村江
충남	大山柵	부여 홍산		전남	南方諸城		
충남	沙井柵	대전 중구	沙井	전남	弓禮	보성	
충남	眞峴城	대전혹석동산성	貞峴	전남	枕服岐城	강진	
충남	加林城	부여성홍산성		경남	牟弓	남해	
충남	怒受利山	논산 연산		경남	居列城	거창거열산성	
충남	內斯只城	대전유성산성		제주	耽羅	제주도	
충남	安德	논산가야곡면	德安城				
충남	石城	부여 석성					

백제 부흥운동기에 등장하는 지명을 정리하면 총 38개로 충남권 20개(53%), 전북권 12개(32%), 전남 3개(8%), 경남 2개(5%), 제주 1개(2%)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지명이 충남·대전권과 전북권에 치우쳐 있는 것이다. 그 중에 충남·대전권은 나·당군의 침공과 점령지가 사비(부여)와 웅진(공주)이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백제 부흥세력이 당 주둔군의 축출을 통해 백제의 완전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 사비와 웅진의 탈환을 위해 충남 지역이 전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많은 지명을 나타나게 한 것이다.

한편, 전북권의 경우 나·당군과 백제 부흥군 사이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부흥운동의 안전한 지원을 위한 배후기지의 역할과 아울러 탈환하지 못한 사비성을 대체하는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주어진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661년 2월 이후 백제 부흥군은 남하하여 이원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부흥운동의 중심지는 전북권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처럼 백제 부흥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초기 부흥운동의 시작 이후에는 부흥운동의 중심 지역이 전북 지역으로 옮겨와 그 끝을 장식하게 된다. 그 중심지는 우리가 익히 아는 두량(완주), 고사성(정읍), 주류성(부안), 피성(김제), 금마(익산) 등과 함께 남원, 임실 그리고 동진강 일대까지 뻗어 있었다.

그렇다면 왜 부흥운동의 중심지가 전북권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던 것일까?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지역이 백제의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게 된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전북권역이 어떻게 백제와 관계를 맺고, 이후 백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 보겠다.

3. 백제와 전북지역의 관계 변화

전북 지역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게 된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백제와 조우하여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였는가를 알게 된다면 부흥운동에서의 전북권이 두드러지는 이유와 함께 전남권이 나타나지 않는 원인도 함께 알 수 있을 것이다.

『삼국지』와 『후한서』, 『한원』에 인용된 『위략』, 『진서』 등 중국측 기록에 따르면, 서기전 3~2세기 무렵부터 한반도에는 마한, 진한, 변한으로 통칭되는 구조 속에 ‘소규모 정치체[小國]’들이 존속하였으며, 그들은 78개에 이를 정도로 성장·발전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삼한 중의 하나인 마한에는 54개나 되는 정치체들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마한이란 단일한 정치체가 아니라 “산과 바다 사이에 흩어져 살았다(散在山海間)”는 표현처럼 각기 지역 단위의 독립적인 형태를 띠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마한 소국들의 위치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마한의 영역으로 생각되는 경기, 충청, 전라도의 한강과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큰 강 일대를 중심으로 각각의 정치체가 밀집하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전북 권역에서는 금강과 함께 동진강·만경강 부근 지역에 여러 정치체가 존재하였다고 짐작할 뿐이다.

〈표 3〉 삼국지 소재 마한 소국 위치 비정⁵⁰⁾

국명	비정지명		국명	비정지명	
	이병도	천관우		이병도	천관우
비리국	전북 옥구 회면	충남 예산·덕산	막로국	-	전남 영광
점비리	전북 고부?	충남 홍성 결성	고랍국	전북 남원	전남 장성
염로국	-	전북 익산 함열?	임소반국	전북 옥구	전남 광산·나주
감해국	전북 함열	전북 익산	신운신국	충남 천안	전남 광산·나주
만로국	충남 보령 남포	전북 옥구	여래비리국	전북 여산	전남 화순 능주
벽비리국	전북 김제 전남 보성 북내면	전북 김제	초산도 비리국	전북 정읍	전남 진도 군내면
구사오단국	전남 장성 진원면	전북 김제 금구	일난국	-	전남 영암
일리국	-	전북 부안·태인	구해국	전남 강진	전남 해남 마산
불미국	전남 나주	전북 부안·태인	불운국	충남 공주서부	전남 보성 북내
지반국	-	전북 부안·태인	불사분사국	전북 전주	전남 승주 낙안
구소국	僞名 간주	전북 정읍 고부	원지국	-	전남 여수
첩로국	-	전북 정읍	건마국	전북 익산	전남 장흥
모로비리국	전북 고창	전북 고창	초리국	-	전남 고흥 남양
신소도국	충남 서산	전북 고창 흥덕			

위 표에서 보듯이 마한의 소국들 중 전라도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은 27곳이다. 그 중 전북 지역이라고 판단된 곳은 각각 11~12개의 소국이며, 전북 권역의 마한 소국들의 위치는 군산(옥구), 익산(함열, 여산), 김제, 부안, 정읍, 고창(흥덕) 등 서부 해안 지역 위주임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백제가 흥기하는 1~3세기 사이 마한은 소멸하는 과정을 밟았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백제의 한강 유역 마한의 병합 시기는 고이왕대⁵¹⁾와 근초고왕대⁵²⁾를 기점으로 보는 것이 대세이다.

8월에……마침내 강역을 구획하여 정하였는데 북쪽으로는 溟河에 이르렀고, 남쪽으로는 熊川을 경계로 하였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막혔고, 동쪽으로는 走壤에 이르렀다.(『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 13년)

50) 김기섭, 2014, 「백제의 영역확장과 마한병탄」, 『백제학보』 11, 98~99쪽
 51) 노중국, 1988,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 문안식, 2002, 『백제의 영역확장과 지방통치』, 신서원, 108쪽
 52) 이기동, 1990, 「백제국의 성장과 마한의 병합」, 『백제논총』 2 ; 김기섭, 2014, 앞의 논문

한편, 위의 기록에 보이는 백제 영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북쪽 패하의 경우 예성강설⁵³⁾이 가장 널리 인식되고, 동쪽 走壤은 강원도 춘천⁵⁴⁾으로 본다. 그리고 남쪽의 熊川은 경기도 안성과 평택을 이어 흐르는 안성천⁵⁵⁾이나 오늘날의 금강⁵⁶⁾으로 보고 있다. 근래에는 위의 온조왕대의 강역 기록이 백제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세력권으로 간주한 지역에 대한 인식이 투영된 것이라면 후대 사실로 소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견해⁵⁷⁾도 있다. 하지만 대체로 백제가 적어도 4세기까지 경기도와 충청 일부 지역까지 진출하였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고고학적으로 경기·충청 지역인 화성 봉담읍 마하리·마로면 백곡리, 포천 자작동, 파주 적성면 주월리, 원주 부론면 법천리, 천안 성남면 용원리, 진천 덕산읍 산수리, 청주 신봉동 등 백제와 관련한 유적들이 대개 4세기 이후로 편년되기 때문이다.⁵⁸⁾

그런데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마한의 일부는 금강 유역과 그 이남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즉, 『진서』 武帝本紀에는 함녕 2년(276) ~ 태희 원년(290)에 동이 관련 기록이 무려 15회나 나온다. 또 『진서』 四夷傳에도 277~290년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진에 遣使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진 무제 咸寧 중에 마한(왕)이 조공해 왔다. 이로부터 삼한을 듣지 못했는데 모두 백제와 신라에게 병탄된 것이다.(『통전』 권185, 동이 상, 변진)

그리고 위의 기록은 당시 중국에서도 마한과 백제 그리고 신라를 구분하여 인식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함녕 연간(275~279)에 금강 유역을 중심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마한이 여전히 존속하였다면, 3세기 후반 무렵에 금강 일대 이남의 마한 정치체들 사이에서도 통합적인 기능을 발

53) 이병도, 1977,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355쪽 ; 한편, 이 강역 기사를 근초고왕대의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보아 패하를 대동강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임기환, 2013, 『백제의 동북방면 진출-문헌적 측면』, 『근초고왕 때 백제영토는 어디까지였나』, 30쪽)

54) 정구복 외, 1997, 『역주 삼국사기』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603~604쪽

55) 이병도, 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247~248쪽

56) 이도학, 1995, 『백제고대국가연구』, 일지사, 320쪽 ; 최범호, 2010, 『백제 온조왕대 강역획정 기사의 제설 검토』, 『백산학보』 87, 124쪽

57) 위가야, 2013, 『백제 온조왕대 영역확장에 대한 제검토-비류집단 복속과 ‘마한’ 국읍 병합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50, 33쪽

58) 김기섭, 2004, 『백제 한성기 연구동향과 과제』, 『백제문화』 33, 16쪽

휘하는 국가 체제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독자적인 교역 체계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고고학적으로도 이 시기 마한의 유력 정치세력이 존재하였음을 상정할 수 있는 漢式 銅鏡이 공주·부여·익산 등 금강 중·하류권에서 출토되었고, 3세기 때의 마한과 연관된 토기인 兩耳附壺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일대가 마한의 중심 세력인 목지국이 있었다⁵⁹⁾는 추측도 나오며, 좀 더 좁혀서는 중심지를 익산⁶⁰⁾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3세기 이후 충청권에서는 주구토광묘가 서서히 단절되는데 반해 영산강 유역에서 고분 축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이것은 금강 유역의 마한 세력마저 백제 때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했던 사정을 말해 준다.⁶¹⁾

이러한 상황은 4세기에 더욱 뚜렷해지며, 이에 마한 세력은 전라도 지역에서도 밀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의 내용을 통해 백제와 전북지역 세력의 상황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다.

처음으로 碧骨池를 만들었는데 독의 길이가 1,800보였다.(『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흘해이사금 21년)

己丑에 비로소 碧骨堤를 쌓았는데 둘레가 □만 7026보요, □□가 166보요, 논이 1만 4070□였다.(『삼국유사』 권1, 왕력1, 제16 결해이질금)

위의 기록을 통해 벽골제의 初築이 330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벽골제는 현재 전북 김제에 있었던 저수지이다. 따라서 위의 기록대로라면 당시 김제 인근은 신라 영토였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당시 신라는 낙동강 이서 지역에도 제대로 세력을 뻗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낙동강 이서에서 소백산맥 일대까지는 가야 세력이 엄존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는 『삼국사기』를 편찬한 찬자가 『百濟本紀』에 실어야 할 기사를 잘못 기록한 것⁶²⁾이 된다. 그러므로 이는 나아가 백제가 이때에 전북 일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알려주는 단서로 볼 여지도 제공한다.

59) 박대재, 2006,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111~116쪽
 60) 박찬규, 2010, 「문헌을 통해 본 마한의 시말」, 『백제학보』 3, 13쪽
 61) 임영진, 1995, 「마한의 형성과 변천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10, 119쪽
 62) 김주성, 2015, 「벽골제의 축조와 변화」, 『한국고대사탐구』 21, 272~273쪽

물론 이에 대해서는 벽골제의 축조 자체가 백제와 관련이 없다⁶³⁾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일본서기』 응신 7년(396)에 왜로 건너간 백제인과 고려인·임나인·신라인들이 저수지를 축조하였는데, 『고사기』에는 이를 ‘백제지(百濟池)’로 기록한 것을 보면 백제는 이보다 앞서 제방과 저수지를 만들었음⁶⁴⁾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벽골제를 초축한 4세기 전반 이후로 그 규모와 기본 시설들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본 견해⁶⁵⁾나, 벽골제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⁶⁶⁾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인력 동원과 함께 일정 정도의 국가급 규모의 행정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만 한다. 따라서 벽골제의 축조는 좀 더 강력한 세력에 의해 주도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 경우 상정할 수 있는 것은 백제일 수밖에 없기에 백제가 처음 이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면서 만들었을 가능성⁶⁷⁾도 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벽골제 주변 지역의 영역화와 연관된 것인지는 좀 더 숙고가 필요하지만 이처럼 벽골제의 축조 시기 및 주체를 상정할 경우 4세기 초 백제의 적극적인 전북지역 진출 노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발판으로 백제는 근초고왕 시기에 이르면 전북 전역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 의지를 드러냈으며, 이러한 사정이 『일본서기』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다.

봄 3월에………곧 木羅斤資와 沙沙奴跪이(두 사람은 그 성을 알지 못한다. 단 목라근자는 백제의 장군이다.)에게 명하여, 정병(精兵)을 이끌고 沙白·蓋盧와 함께 파견하였다. 이들이 함께 탁순국에 모여서 신라를 격파하였다. 그리하여 비자발, 남가라, 녹국, 안라, 다라, 탁순, 가라의 7국을 평정하였다. 군사를 옮겨 서쪽을 돌아 고해진에 이르러 南蠻의 침미다례를 무찔러 백제에게 주었다. 이에 그 왕인 肖古와 왕자 貴須가 또한 군사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 그때 비리, 벽중, 포미, 지반, 고사의 邑은 스스로 항복하였다. 그리하여 백제왕 부자와 황전별, 목라근자 등은 意流村(지금의 州流須祗를 말한다.)에서

63) 축조 세력을 고비리국(정읍)과 벽비리국(김제)의 연합 세력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최완규, 2016, 「전북지역 마한·백제 묘제의 양상과 그 의미」, 『백제학보』 18, 154쪽)

64) 노중국, 2010, 「백제의 수리시설과 김제 벽골제」, 『백제학보』 4, 31쪽

65) 강봉룡, 2018, 「‘새만금 바다’, 고대 동아시아의 해양 허브-7세기 동아시아 해전과 벽골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50, 63쪽

66) 이도학, 1997, 앞의 책, 110쪽

67) 김근영·정재윤, 2019, 「백제의 중방성 설치와 그 의미」, 『마한백제문화』 33, 46쪽

만났다. 서로 보고 기뻐하였고, 예를 후하게 하여 보냈다. 다만 千熊長彦과 백제왕은 백제국에 이르러 辟支山에 올라가 맹세하였다. 또 古沙山에 올라, 함께 반석 위에 앉았다. 이때 백제왕이 맹세하여 ……천웅장언을 데리고 도성 아래에 이르러 후하게 예우를 더하였다.(『일본서기』 권9, 신공 49년)

위의 기록은 시기적으로 神功 49년 즉 249년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학계에서는 이 기록에 등장하는 백제왕 肖古와 왕자 貴須를 각기 근초고왕과 근구수왕에 해당한다고 보아 120년의 보정연대를 두었다. 이렇게 되면 위의 내용은 근초고왕 24년(369)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위 기록이 4세기인 근초고왕대의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5세기 이후의 내용을 반영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⁶⁸⁾ 나아가 위 기록이 전하는 내용은 백제계 사료에 의한 것인지는 불분명한 반면 오히려 아리타와케[荒田別], 카가와케[鹿我別]의 왜국측 씨족 전승에 의거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사료의 신뢰도가 충분치 않은 관계로 아예 6세기 이후의 사실을 소급한 것⁶⁹⁾이라 보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은 고고학적인 측면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영산강 유역의 경우는 대형 옹관묘의 존재와 이 지역에 백제의 묘제인 석실분이 5세기 말~6세기 초에 유입된다는 사실을 통해 근초고왕 때의 남방 진출 지역 중 전라도 남부 즉 전남 일대에 대한 복속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⁷⁰⁾ 하지만 5세기를 전후하여 이 지역의 분묘군에서 묘제와 위치 변화가 보이고, 이후 새로운 분묘군이 불분명하거나 조영된 중심 분묘에서도 백제의 위세품이 보이며, 비록 소수이지만 백제 토기의 요소도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충청 북부 지역과는 다르지만 근초고왕의 남방 정벌이라는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⁷¹⁾도 제기되므로, 위의 신공 49년 기록을 백제의 입장에서 해석할 여지는 여전하다 할 수 있다. 다만 당시 근초고왕의 진출이 ‘일시적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68) 연민수, 1998, 『일본서기 신공기의 사료비판』, 『고대한일관계사』, 해안 ; 이근우, 1997, 『웅진시대 백제의 남방경역에 대하여』, 『백제연구』 27, 59~60쪽 ; 김기섭, 2014, 『백제의 영역확장과 마한병탄』, 『백제학보』 11, 106쪽

69) 정동준, 2018, 『백제 근초고왕대의 마한 영역화에 대한 사료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91, 107쪽

70) 임영진, 2010, 『묘제를 통해 본 마한의 지역성과 변천과정』, 『백제학보』 3, 41쪽

71) 서현주, 2013, 『백제의 서남방면 진출-고고학적 측면』, 『근초고왕 때 백제영토는 어디까지였나』, 133쪽

하는 정도의 차이와 그 진출 대상 지역이 백제의 지배 체제에 곧바로 ‘편제되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과정의 문제일 뿐이다.

어쨌든 당시 백제는 목라군자와 사사노궤가 군대를 이끌고 낙동강 일대 경상도의 비자발(창녕), 남가라(김해), 안라(함안), 탁국(창원), 다라(합천), 탁순(대구), 가라(고령)를 평정하였다고 나타난다. 그리고 가야의 문제 해결 후 백제군은 서쪽으로 고해진에 다다른 후에 남만 침미다례까지 정벌하였는데 이때 별도로 백제 근초고왕과 왕자 귀수가 군대를 끌고 내려오자, 비리·벽중·포미·지반·고사⁷²⁾ 지역이 투항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낙동강 이서 소백산맥 이동의 가야 지역과 별개로 소백산맥 이서의 전라도 마한 세력에 대한 공략이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이중 침미다례는 전남 강진·해남⁷³⁾ 일대로 보며, 비리(군산)⁷⁴⁾·벽중(김제)·포미·지반(부안)·고사(정읍)의 경우도 國邑이라 표현될 지역 거점⁷⁵⁾이라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기록에는 근초고왕 부자와 정벌군이 의류촌이란 곳에서 회동하였고, 다시 群支山과 古沙山에 올라 승리 의식을 거행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의류촌을 달리는 주류수지라고 하였던 바 바로 주류성⁷⁶⁾을 가리킨다. 아울러 벽지산과 고사산은 각기 김제와 정읍⁷⁷⁾으로 보고 있는데, 백제왕이 각각 산에 올라 맹세를 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이 지역을 중요시한 것⁷⁸⁾을 뜻한다. 특히 고사 지역은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는 狗素國에 해당하는 바 『한원』의 기록에 의하면 ‘國鎮馬韓 地苞狗素’라 하여 마한을 진압할 때 구소국을 특별히 언급할 정도로 고사 지역이 백제의 마한 정벌에 커다란 분기점⁷⁹⁾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위의 신공 49년에서 반석의 맹세를 다짐한 장소는 고사산이다. 이는 벽지산보다 고사산이 더 강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고사 지역이 중요시되는 의식은 반영한 것이다. 실제 정읍 고부는 동진강과 그 지류를 통해 전라북

72) 전영래, 1976, 『주류성·백강 위치 비정에 관한 신연구』, 52~54쪽 ; 천관우, 1989,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393쪽 ; 문안식, 2001, 『백제의 영산강유역 진출과 토착세력의 추이』, 『전남사학』 16, 17쪽

73) 김영심, 2013, 『문헌자료로 본 침미다례의 위치』, 『백제학보』 9, 19쪽

74) 김태식, 1997, 『백제의 가야지역 관계사 교섭과 정복』, 『백제연구총서』 5, 51쪽

75) 김제, 부안, 고부, 정읍, 고창 흥덕 등으로 보았다.(김낙중, 2013, 『고고학 자료로 본 비리벽중포미지반고사읍의 위치』, 『백제학보』 9, 27~32쪽)

76) 이도학, 2013, 『영산강 유역 마한제국의 추이와 백제』, 『백제문화』 49, 120쪽

77) 전용신 역, 1989, 앞의 책, 166쪽

78) 최완규, 앞의 논문, 154쪽

79) 정재운, 2013, 『문헌자료로 본 비리벽중포미지반고사읍』, 『백제학보』 9, 12쪽

도 전역에 다다를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을 가진 곳이다. 따라서 이를 관장한다면 백제가 만경강 이남부터 고창 이북에 이르는 지역을 아우를 기반을 갖추는 것⁸⁰⁾을 의미한다.

근초고왕의 정벌로 비리(군산)·벽중(김제)·포미·지반(부안)·고사(정읍) 등의 전북 지역이 백제의 영향권이 들어간 직후 백제는 이들 지역을 “바다 서쪽의 여러 한(海西諸韓)”⁸¹⁾, 또는 “海西를 평정하여(平定海西)”⁸²⁾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한반도 서남해의 諸韓을 평정’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이 지역이 백제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가는 근초고왕이 “너무 기뻐서 팔쩍 뿔(歡喜踊躍)”⁸³⁾ 정도였다거나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손자인 침류왕에게 “이로 말미암아 국가의 기틀이 영원히 단단해졌다(由是 國基永固)”⁸⁴⁾고 언급한 부분을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웅진시대에 이르러서도 이 지역에 대한 백제의 관심은 지속적이었다. 그러한 사실은 동성왕 시기 백제가 이 지역에 기울인 관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제서』에는 동성왕 12년(490)에 면중왕 저근을 도한왕에, 팔중후 여고를 아찰왕에, 건위장군 여력을 매로왕에, 여고를 불사후에 임명하였고, 또 동성왕 17년(495)에도 사범명을 매라왕에, 찬수류를 벽중왕에, 해례곤을 불중후에, 목간나를 면중후에 임명하는 것⁸⁵⁾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면중, 도한, 팔중, 아찰, 매로(라), 불사, 벽중, 불중 등의 지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 벽중은 김제로, 阿錯은 魯山州 6현 중의 阿錯縣⁸⁶⁾으로, 邁廬(羅)는 都督府 13현 중의 邁羅縣(군산 옥구)⁸⁷⁾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面中·都漢·팔중은 각기 광주·고흥·나주⁸⁸⁾로 보고 있다. 따라서 동성왕대의 작호 관련 지명들은 웅진을 중심으로 한 방어 체제 구축 및 전라도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벽중·아찰·매로(라)와 같은 지역은 4세기 근초고왕 때에 이미 백제에 편입된 지역으로, 수도인 웅진(공주)에서 가깝기 때문에 도성의 방위에 중요하였다. 이에 반해 팔중·도한·

80) 김근영·정재운, 앞의 논문, 47쪽

81) 『일본서기』 권9, 신공 50년 5월.

82) 『일본서기』 권9, 신공 51년.

83) 『일본서기』 권9, 신공 50년 5월

84) 『일본서기』 권9, 신공 52년 9월

85) 『남제서』 권58, 열전39, 동남이, 동이, 백제

86) 『삼국사기』 권37, 잡지6, 지리4, 魯山州. 노산주가 익산·김제·완주 일대이므로 아찰은 주변으로 추정된다.

87) 『삼국사기』 권37, 잡지6, 지리 4

88) 이도학, 2013, 앞의 논문, 124쪽

면중은 비록 근초고왕 이래 관련을 맺지만 웅진 천도 이후에 완전히 편입된 지역이라 볼 수 있다. 영산강 유역의 문화 양상으로 보아, 전남 지역 일대가 백제의 영토로 편입된 시기가 동성왕대의 왕후호 제수 요청 시기와 근접⁸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벽중이란 지명이다. 이를 벽골, 벽지와 동일한 곳으로 본다면 벽중은 만경남 이남과 원평천 유역의 김제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 김제는 만경강, 동진강이 흐르며 평야가 발달한 지역으로 벽골제가 있어 곡창지대였다. 그런 곳에 왕·후를 파견한 것은 직접 관리하려는 움직임의 의미한다.

더불어 정읍 고부 지역에는 재지세력과 연관된 지사리, 운학리 일대의 분구묘 축조가 줄어드는 것이 반해 영원면 은선리 지역에 횡혈식 석실분이 지속적으로 축조된다.⁹⁰⁾ 빠른 것의 경우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반 무렵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 지역에 백제 중앙의 직접적인 세력 확산⁹¹⁾으로 지역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읍천 유역에서도 신정동 유적에서 횡혈식 석실분, 횡구식 석곽분, 옹관묘가 조사되었고, 출토 유물은 금강 유역의 6세기 초에 해당하는 유개합, 직구호, 개배 등이 나왔다. 이것 또한 백제 중앙과 직접적인 교류가 이뤄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비유형 석실분의 축조 배경은 백제 사비시기에 재편된 5부 5방체의 행정구역 정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표 4〉 백제 5방성의 위치에 대한 견해

	이병도	천관우	전영래	이남석	김영심	박현숙
중방(고사성)	옥구	고부	고부	고부	고부	고부
동방(득안성)	은진	은진	은진	은진	은진	은진
남방(구지하성)	장성	?	남원	구례	남원	광주/나주
서방(도선성)	?	서산·당진/예산 대흥	나주·영암	대흥	서산/보령	예산 대흥
북방(웅진성)	공주	공주	공주	공주	공주	공주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방의 경우 대부분이 정읍 고부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 옥구일 가능성을 제기한 이유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임피현과 옥구현에 보이는 古史浦를 古沙와 동일한 것으로 보았기 때

89) 임영진, 앞의 논문, 119쪽

90) 이문형, 2016, 『정읍지역 백제 횡혈식석실묘의 분포와 현황-영원면 일대를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7-3, 185쪽

91) 최완규, 2013, 『김제 벽골제와 백제 중방성』 『호남고고학보』 44, 171쪽

문이다. 하지만 조선 중기의 지명인 고사포를 고사부리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아래의 기록처럼 古四州와 연결시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리라 본다.

고사주는 본래 고사부리로 5현인데 평왜현은 본래 고사부촌이고, 대산현은 본래 대시산이며, 벽성현은 본래 벽골이고, 좌찬현은 본래 상두이며, 순모현은 본래 두나지이다.(『삼국사기』 권37, 잡지6, 지리 4, 당령백제)

고사주는 평왜(정읍), 대산(태인), 벽성(김제), 좌찬(고창 흥덕), 순모(김제 만경)의 5현을 거느렸다. 이것으로 중방의 범위는 김제, 부안, 정읍, 고창 등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4세기 중엽 이후 백제와 접촉하면서 이 지역의 중심지로 부각하기 시작하였고, 웅진과 사비시대를 거치면서 영산강 유역 등 남쪽 지역이 완전히 백제에게 복속한 이후에는 백제 5방 체제가 확립되면서 국토의 한 가운데에 설치되었다는 중방의 의미⁹²⁾까지 가지게 된 것이다.

4. 부흥백제국 수립과 전북지역의 역할

백제 부흥운동의 최종 목표는 일시 단절된 국가의 연속성 확보였다. 부흥세력은 나·당 침략군을 몰아내고 왕통을 이으면 국가가 지속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백제 부흥운동은 ‘새로운 국가의 시작’이 아니라 ‘국가위기 상황의 안정’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었다. 660년 9월 23일에 수도인 사비성을 포위·공격하고, 10월에 왜국에 있는 왕자 부여풍의 왕위 계승 요청은 이러한 생각의 실행이었다.

백제 부흥운동에서 중요한 점은 660년 7월 18일 백제의 항복 순간부터 살아남은 백제의 정치세력이 새 왕권 수립의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부흥운동’은 정치 행위이므로, 국가 부흥 실행의 기저 즉 왕통의 회복과 국정 재건이란 내부 문제란 관점이 더욱 중요하다.

한편 부흥 세력은 나·당 주둔군을 몰아내기 위해 새로운 중심 근거지의 필요성에도 주목하였다. 660년 7월 사비성이 함락된 후 부흥군이 탈환하려 한

92) 김영삼, 2019, 『백제 중방성의 설치와 고부지역의 통치양상』 『마한백제문화』 33, 26쪽

것은 도성을 수복하여 국가의 연속성을 확인하려고 한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비는 나·당군의 수중에 있었고, 부흥운동은 탄력을 받아 금강 서쪽(江西)에서 점점 금강 동쪽으로 확산되었다. 따라서 부흥운동이 일부 세력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전 지역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

그런데 백제는 두 세기 전 고구려의 침공으로 수도가 함락되고 왕마저 죽은 상황에서 새롭게 국가를 재건한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사비성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중심지가 모색되었다. 이 경우 주목될 곳은 침략이 비켜간 곳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백제 무왕이 천도를 계획하던 금마저(익산)나 백제의 지방조직인 5방 중 하나인 중방 고사성 등이 관심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충남·대전권에서 사비를 대체할 지역을 모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충남은 나·당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곳이고, 또한 당 주둔군이 존재하여 위협이 상존하는 지역이었다. 더불어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금강 유역을 해로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과의 통로 확보도 필요했다. 이 경우에도 남쪽 지역은 왜국과 가까울 뿐 아니라 교섭에도 유리한 고사성⁹³⁾이나 사비나 웅진으로 들어가는 해상로의 길목이며 대중국·대왜 사절선이 드나들던 부안 죽막동 유적⁹⁴⁾ 등이 항구를 확보할 강점을 지녔기에 부흥운동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부흥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식량 확보 등 경제적인 지속성도 유지해야만 했다. 당시 백제 부흥군과 대립하던 당 주둔군은 자체적인 조달이 없이 일체를 신라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현경 5년(660)에서 용삭 2년(662)까지 백제 주둔 당군의 군량 지원이 끊임없이 지속되었음⁹⁵⁾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당 주둔군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에 대응하는 백제국 또한 그 군사력 유지에 비례하여 군량의 획득과 소모가 엄청났을 것이므로, 식량을 생산·공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구당서』 유인궤전에는 “初百濟經福信之亂 合境凋殘 殭屍相屬”라 하여 당 주둔군과 백제 부흥세력 사이의 전쟁으로 어려웠음을 짐작케 한다. 자급자족에 의존하던 전근대 시기임을 고려하고, 전시로 인해 경작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것임과 함께 행정 체계의 와해로 공급마저도 제대로 유지되지 못했을 것을 감

93) 『신증동국여지승람』 고부군 산천 항목의 “大浦[在郡西十里 訥堤川下流 潮水往來]”를 중방 고사성의 항구로 보기도 한다.(김병남, 2007, 『정읍 고부의 지역적 형성과 변화 과정』, 『전북사학』 31, 23쪽)

94) 우재병, 2010, 『백제 서해안지역 죽막동제사유적에서 발견된 왜인의 흔적과 그 의미』, 『선사와 고대』 33, 292~293쪽

95)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안하면 좀 더 유효하고 적극적인 식량자원 마련과 공급을 위한 대안체제 구축이 당면 과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피성은 서북으로 古連且溼의 물이 띠처럼 두르고 동남으로는 깊은 늪과 커다란 제방이 막고 있다. 주위가 밭으로 둘러져 있고 도랑을 파서 빗물을 모을 수 있다. 꽃과 열매가 여는 것이 三韓 가운데 가장 기름진 곳이다. 衣食의 근원이 천지 사이에 숨겨져 있는 곳이다. 『일본서기』 권27, 천지 원년)

그런 면에서 백제 중방 지역 즉, 전북권역은 이를 지탱할 화수분 같은 곳이었다. 위의 기록처럼 ‘꽃과 열매가 열리는 것이 삼한 가운데 가장 기름진 곳(華實之毛 則三韓之上腴焉)’이라는 표현은 중방 고사성 권역인 정읍, 부안, 김제, 고창, 흥덕 등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의식의 근원(衣食之源)’ 즉 경제적 문제를 해결⁹⁶⁾해주는 이 지역이 없이는 부흥운동은 단절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외세 축출이라는 저항운동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한 백제 부흥운동의 성패에서 전북 지역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역사적·경제적·지리적인 모든 측면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였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백제 부흥운동 기간(660년 7월~663년 9월) 동안의 관련 지명들을 분석해 보면, 충남·대전권 20개(53%), 전북권 12개(32%), 전남 3개(8%), 경남 2개(5%), 제주 1개(2%)로 확인된다. 이처럼 대부분 충남·대전권과 전북권인 원인은 충남·대전권의 경우 초기 나·당군의 침공과 점령이 사비(부여)와 웅진(공주)에 집중된 것과 연관이 있고, 전북권은 사비 탈환의 실패에 따라 장기화된 부흥전쟁을 감당하는 대체 지역으로 부상한 것과 관련이 있다. 661년 2월~4월 사이에 부흥세력이 전북권역인 두량이·고사비성 전투에서 신라군을 격퇴한 후 부흥운동이 확산되면서 두량이(완주), 고사성(정읍), 주류성(부안), 피성(김제), 금마(익산) 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여기에 남원, 임실 그리고 동진강 일대도 부흥운동과 관련된 지역이 되었다.

96) 김병남, 2019, 「부흥백제국의 피성 천도 배경과 결과」, 『백제학보』 27, 17~18쪽

이처럼 전북지역이 백제에서 중요한 위상과 위치를 갖는 것은 유구한 연원을 갖는다. 전북권역은 백제와 관련을 맺기 전인 1~3세기 사이 11~12개의 마한 소국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은 군산(옥구), 익산(함열, 여산), 김제, 부안, 정읍, 고창(홍덕) 등 서부 해안 지역에 있던 걸로 추정되는데 4세기에 접어들어 금강 이남 지역으로 진출한 백제와 조우하게 된다. 그리고 369년에 백제가 대대적인 남방 진출을 시도하여 남만 침미다례(전남 강진·해남 일대)와 함께 전북권역의 장악에 나선다.

이때 비리(군산)·벽중(김제)·포미·지반(부안)·고사(정읍)와 의류촌(주류수지=주류성) 등이 백제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당시 백제왕이 벽지산(김제)과 고사산(정읍)에 올라 맹세를 하고, 『한원』이란 기록에 ‘國鎮馬韓地苞狗素’라 언급되거나 『일본서기』에 ‘國基永固’라고 표현한 사실 등으로 보면 전북 지역이 백제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은 웅진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남제서』의 동성왕 12년(490)과 17년(495)에 왕·후호 제수 요청 기록에 등장하는 벽중(김제), 아착(익산·김제·완주 일대) 매라(군산 옥구), 면중(광주), 도한(고흥), 팔중(나주) 등의 지명은 웅진을 중심으로 한 방어 체제 구축 및 전라도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불어 정읍 고부 지역에 확산되는 6세기 초·중엽 횡혈식 석실분 등의 축조 배경은 백제 사비시기에 재편된 5부 5방제의 행정구역 정비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4세기 중엽 이후 전북권역이 백제와 접촉하면서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되었고, 웅진과 사비시대에 백제 5방 체제가 확립되면서 국토의 한 가운데에 설치되었다는 중앙으로서의 중방이란 의미까지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백제 부흥운동의 최종 목표가 단절된 국가의 연속성 확보였다면, 부흥세력은 나·당군을 몰아내기 위한 안전한 정치·경제적 근거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미 사비 및 웅진 등 충남·대전권이 전쟁의 앞 마당이 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항쟁을 위한 근거지로 고려될 곳은 침략이 비켜간 금마저(익산)나 중방 고사성 등이 필연적이었다. 또한 부흥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식량 확보 등 경제적인 지속성도 유지해야만 했다. 그런 면에서 백제 중방 지역 즉, 전북권역은 삼한에서 가장 기름진 곳으로서 ‘의식의 근원(衣食之源)’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백제 부흥운동에서 전북 지역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역사적·경제적·지리적인 모든 측면에서 부흥국 수립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후한서』 『삼국지』 『진서』 『양직공도』 『남제서』 『구당서』 『통전』 『자치통감』 『한원』 『일본서기』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편,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서경, 2004.

공주대학교박물관, 『연기운주산성』, 1997.

김영관, 『백제부흥운동연구』, 서경, 2005.

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노중국,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1988.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동북아역사재단, 『역주 일본서기』 3, 2013.

문안식, 『백제의 영역확장과 지방통치』, 신서원, 2002.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2006.

박노자, 『거꾸로 보는 고대사』, 한겨레출판, 2010.

박대재,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2006.

박성홍, 『홍주주류성고』, 홍성군, 1994.

상명여대박물관·홍성군, 『홍성군 장곡면 일대 산성지표조사보고서』, 1995.

상명여대박물관·홍성군, 『홍성석성산성건물지발굴조사보고서』, 1998.

서천군·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건지산성』, 1998.

서천군·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한산 건지산성』, 2001.

양종국, 『의자왕과 백제부흥운동 옛보기』, 서경, 2008.

예산군·충남개발연구원, 『예산 임존성』, 2000.

이도학, 『백제고대국가연구』, 일지사, 1995.

이도학, 『새로 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1997.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임용환, 『한국고대전쟁사』 2, 혜안, 2012.

전영래, 『백촌강에서 대야성까지』, 신아출판사, 1996.

전용신, 『완역 일본서기』, 일지사, 1989.

-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천관우,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1989.
- 최병운 외, 『전북역사문화자료집(삼국시대·남북국시대·고려시대)』, 전라북도, 2000.
- 충남대 박물관·대전시, 『계족산성 발굴조사약보고』, 1998.
- 충남백제문화연구원, 『백제사자료역주편-일본편』, 2008.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백제사자료역주집-한국편1』, 2008.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6, 2007.
- 충청남도, 『문화유적총람(성곽 관아편)』, 1991.
- 강봉룡, 「‘새만금 바다’, 고대 동아시아의 해양 허브-7세기 동아시아 해전과 벽골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50, 2018, 39-74쪽.
- 곽장근, 「임나사현과 기문의 위치」, 『백제학보』 9, 2013, 168-191쪽.
- 김근영·정재윤, 「백제의 중방성 설치와 그 의미」, 『마한백제문화』 33, 2019, 39-69쪽.
- 김기섭, 「백제 한성기 연구동향과 과제」, 『백제문화』 33, 2004, 1-19쪽.
- 김기섭, 「백제의 영역확장과 마한병탄」, 『백제학보』 11, 2014, 91-110쪽.
- 김낙중, 「고고학 자료로 본 비리벽중포미지반고사읍의 위치」, 『백제학보』 9, 2013, 130-167쪽.
- 김병남, 「백제 부흥 전쟁기 고사비성 전투의 의미」, 『정신문화연구』 126, 2007, 279-306쪽.
- 김병남, 「백제 부흥전쟁기의 웅산성 전투와 그 의미」, 『전북사학』 42, 2013, 45-72쪽.
- 김병남, 「부흥백제국의 피성 천도 배경과 결과」, 『백제학보』 27, 2019, 5-26쪽.
- 김병남, 「정읍 고부의 지역적 형성과 변화 과정」, 『전북사학』 31, 2007, 13-42쪽.
- 김영관, 「나당연합군의 백제공격로와 금강」, 『백제와 금강』, 2007.
- 김영심, 「문헌자료로 본 침미다례의 위치」, 『백제학보』 9, 2013, 67-90쪽.
- 김영심, 「백제 중방성의 설치와 고부지역의 통치양상」, 『마한백제문화』 33, 2019, 5-38쪽.
- 김주성, 「벽골제의 기능」, 『백제문화』 58, 2018, 113-129쪽.
- 김주성, 「벽골제의 축조와 변화」, 『한국고대사탐구』 21, 2015, 267-292쪽.
- 김태식, 「백제의 가야지역 관계사 교섭과 정복」, 『백제연구총서』 5, 1997.

- 노도양, 「백제 주류성고」, 『명대논문집』 12, 1979.
- 노중국, 「백제의 수리시설과 김제 벽골제」, 『백제학보』 4, 2010, 27-41쪽.
- 문안식, 「백제의 영산강유역 진출과 토착세력의 추이」, 『전남사학』 16, 2001, 1-32쪽.
- 박노석, 「백제부흥전쟁기 두릉윤성과 백강의 위치에 대한 고찰」, 『전라북도 백제부흥운동과 백강전투의 콘텐츠 방안』, 2017.
- 박찬규, 「문헌을 통해 본 마한의 시말」, 『백제학보』 3, 2010, 5-24쪽.
- 백승충, 「6세기 전반 백제의 가야진출과정」, 『백제연구』 31, 2000, 57-91쪽.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관방유적」, 『충남지역의 문화유적-연기군편-』 12, 1999.
- 서정석, 「백제 백강의 위치」, 『백산학보』 69, 2004, 203-230쪽.
- 서정석, 「연기 운주산성에 대한 고찰-통일신라시대 산성의 일례」, 『박물관연보』 5, 공주대박물관, 2000.
- 서현주, 「백제의 서남방면 진출-고고학적 측면」, 『근초고왕 때 백제영토는 어디까지였나』, 2013.
- 성주탁, 「대전부근 고대산성고」, 『백제연구』 5, 1974.
- 심정보, 「백제부흥군의 주요거점에 관한 연구」, 『백제연구』 14, 1983, 143-194쪽.
- 양기석,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신라서원소경연구』, 2001.
- 연민수, 「일본서기 신공기의 사료비판」,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1998.
- 우재병, 「백제 서해안지역 죽막동제사유적에서 발견된 왜인의 흔적과 그 의미」, 『선사와 고대』 33, 2010, 273-299쪽.
- 위가야, 「백제 온조왕대 영역확장에 대한 재검토-비류집단 복속과 ‘마한’ 국읍 병합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50, 2013, 7-42쪽.
- 이규홍, 「백제부흥운동시기의 기벌포 전투와 주류성」,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이근우, 「웅진시대 백제의 남방경역에 대하여」, 『백제연구』 27, 1997, 43-66쪽.
- 이기동, 「백제국의 성장과 마한의 병합」, 『백제논총』 2, 1990.
- 이도학, 「영산강 유역 마한제국의 추이와 백제」, 『백제문화』 49, 2013, 109-128쪽.
- 이문형, 「정읍지역 백제 황혈식석실묘의 분표와 현황-영원면 일대를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7-3, 2016, 171-203쪽.
- 임기환, 「백제의 동북방면 진출-문헌적 측면」, 『근초고왕 때 백제영토는 어디까지였나』, 2013.
- 임영진, 「마한의 형성과 변천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10, 1995,

93-121쪽.

- 임영진, 「묘제를 통해 본 마한의 지역성과 변천과정」, 『백제학보』 3, 2010, 25-46쪽.
- 전영래, 『주류성·백강 위치 비정에 관한 신연구』, 1976.
- 정동준, 「백제 근초고왕대의 마한 영역화에 대한 사료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91, 2018, 87-123쪽.
- 정재윤, 「문헌자료로 본 비리벽중포미지반고사읍」, 『백제학보』 9, 2013, 110-129쪽.
- 정재윤, 「신라의 백제고지 점령 정책-완산주 설치 배경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98, 2002.
- 최범호, 「백제 온조왕대 강역획정 기사의 제설 검토」, 『백산학보』 87, 2010, 99-133쪽.
- 최범호, 「완산주 설치와 관련한 전주의 지정학적 배경」, 『전북사학』 51, 2017, 35-56쪽.
- 최완규, 「김제 벽골제와 백제 중방성」, 『호남고고학보』 44, 2013, 165-196쪽.
- 최완규, 「전북지역 마한·백제 묘제의 양상과 그 의미」, 『백제학보』 18, 2016, 125-166쪽.

<Abstract>

The Reconstruction Movement of Baekje and the Role of Jeollabuk Region

Kim Byung Nam*

This Study tries to arrange the location of a name of places related and analysis their meaning, examining what the role Jeollabuk region took from July 660 to September 663, the time of the reconstruction movement of Baekje. It checks the name of places in this time: Chungcheongnam·Daejeon 20 names(53%), Jeollabuk 12 names(32%), Jeollanam 3 names(8%), Gyeongsangnam 2 names(5%), and Jeju 1 name(2%). Especially it shows that the center of the movement was moved from Sabi(Buyeo) and Ungjin(Gongju) to Duryangi(Wanju), Gosa-seong(Jeongeup), Juryu-seong(Buan), Pi-seong(Gimje), and Geumma(Iksan).

So it presents that the high position of Jeollabuk region is related to Baekje. In the 4th century Biri(Gunsan), Byeokjung(Gimje), Pomi, Jiban(Buan), Gosa(Jeongeup), and Uiryuchon(Juryuseong) came under Baekje's influence. Baekje was bothered about it to say that the foundation of a nation was firm eternally. As Jeollabuk region was magnified as important area in Baekje, it was called 'Jungbang' meaning that it was installed in the very middle of Baekje after Baekje established '5-Bang system' during the time of Ungjin and Sabi.

In this way, the reconstruction group needed a more safe base to secure continuity to Baekje. But Sabi and Ungjin were a battlefield, and the group needed to secure food for the reconstruction war. So it did not have a choice but to look at Geummajeo(Iksan) and Gosa-seong in Jungbang where Na-dang Union Army did not attack on yet and they were very fertile land in Samhan area(the Korean Peninsula). So Jeollabuk region in the reconstruction movement of Baekje was the key role on all ways, historical, economical, and geographical aspects.

Key Words : reconstruction movement, Duryangi, Gosa-seong, Jiban, Juryu-seong, Pi-seong, Geumma, Jungbang, Samhan, Jeollabuk region

* Curator, National Archives of Korea